

2014 4.27 부활 제 2 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2,42-47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제 2 독서 : 베드로 1 서 1,3-9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복 음 : 요 한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우리는 부활제 2 주일이면서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전의 일입니다.

폴란드의 파우스티나 수녀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계시를 받으셨고,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께서 대희년인 2000 년 부활 제 2 주일에 파우스티나수녀를 시성 하셨으며, 교회는 2001 년부터 부활 제 2

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무한히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 오신다는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중에 영화 한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Heaven is for real” 입니다. 미국에서 네살짜리 어떤 목사님의 어린아이가 죽는 단계까지 갑니다. 우리 천주교의 성인전을 보면 영혼이 이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영혼을 이탈해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성인 성녀들께서 그런 경험을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병원 수술실에서 나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천사들을 보았고, 하늘나라를 보았다고 하는데 실상, 목사인 아버지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수술실에서 있었을 때의 상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있는 소성당에서 “내 아들을!” 하면서 험악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영혼을 이탈해서 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사실은 이런 사실들을 수술대위에 있는 아이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다 설명을 해 주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믿는 것이 그 엄마가 유산을 하였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자기 누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에게 누나가 있지 않느냐?” 고 하였더니, 아니 그 누나 말고 먼저 누나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랐었다고 대답하여 줍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약 10 여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 주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부 공산권에 있는 리투아니아에서 한 아이가 이 아이 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네살때에 그런 체험을 하였는데 이 여자아이이가 커서 자기가 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인터넷을 찾다가 그것을 봅니다. 우연히도 아이가 놀다가 와서 그것을 보더니 “That’s it!”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어린이들이 체험한 하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빈치 코드처럼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저는 주중에는 어린이 교리시간에 들어가보곤 하는데 어린이들로부터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고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찍히 저는 하늘나라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좋은줄은 알아요, 예수님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이는 하늘나라에서 동물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토마스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물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아이가 본 하늘나라의 동물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다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자로와 부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어떻다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연세드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좋구요. 하늘나라에는 모든이들이 젊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일어났던,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중의 하나는 하느님을 찬양한다고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증언을 듣고는 다 회의적으로 변해 버리고 맙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특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 아니냐? 고. 사실 신학적으로도 최근에 하늘나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연옥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4-5 십년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서를 통해서도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차례 수십차례 말씀하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체를 받아모시면서, 진짜 **성체가 하느님의 몸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걸음마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일 것입니다. 제 2 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를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하여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어머니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날 위해서 성당 다니라고 그랬나?” 바로 형제 자매님들, 자신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중에 때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 나와 주는 것 만으로도 고마워 하세요.” 제가 고마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보태 주시니까,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보태 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것 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이 너무 기쁜것입니다. 왜냐?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쁜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2 독서에서 베드로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히스페닉 공동체에서 어린이 첫영성체를 줄때마다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아이들은 모두 첫영성체를 기쁜마음으로 영하는데, 어떤경우에는 대부대모라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그리스도의 몸!**” 하면 팔짱을 낍니다. 거기에서 확실한 것을 알 수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 1 독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공동체의 형제들은 모두가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분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복음에서는 더욱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보이지 않는 그 분을 보지도 않고 믿는것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과 죽음, 그분의 죽음과 승천을 즐겁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후에 초기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한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일에 전념하였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모자란 것이 없었는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재산과 재물을 팔아 저마다 필요한대로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바오로성인의 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빠루시아(Parousia) “**있지만 아직 !**” 천상의 그 모든 즐거움이 존재 하는데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천상의 삶을 우리가 앞당겨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천상의 삶을 당겨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느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때에 ! 오늘 시편의 노래를 보십시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 분의 자비 하심과 또 자애하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내 이웃과 빵을 순박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쪼개 나누어 산다면 우리는 바로 천상의 삶을 앞당겨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이 미사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42-47

형제들은 42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43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44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46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47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18(117),2-4.13-15 그.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1 서의 말씀입니다. 1,3-9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4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5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6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